

김 교육감, 우익성향 안보교육 반대

“안보, 국가에 자부심 가질 때 자연스럽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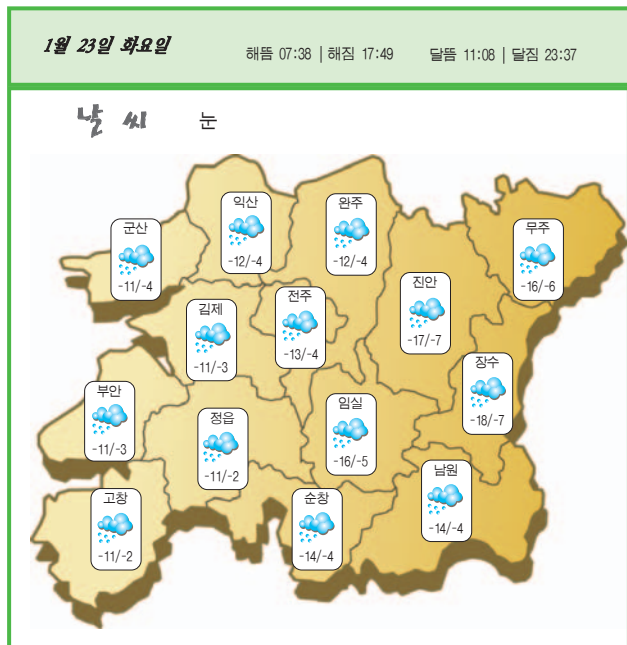
김승환(사진) 전라북도교육감이 우익성향 단체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학생 대상 안보교육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2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안보는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 국가에 대한 자



부심을 통해 국민의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면서, 일부 우익성향 단체가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편향적인 내용을 교육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이 단체의 안보교육(6.25 전쟁 바로 알리기)에 학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면서, “이 단체는 교육 홍보자료를 통해 ‘현행 중·고교 검정교과서의 한국사 교육이 파행상태’이며,

‘국사 교육의 실사가 미흡’하고, ‘근현대사는 이념전쟁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등의 편향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역사 국정교과서 찬성 활동과 소속 인사들의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 참여 등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말 것을 주무과에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수많은 사람들이 6.25에 참전해 나라를 지켰다. 그 가치는 아무도 부정해선 안 되고, 두고두고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

되는 것이어서 절대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편향된 ‘안보교육’을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앞으로 제작하는 영상홍보물에는 원칙적으로 수어(手語)가 포함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영상물은 장애인들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최소한 농이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를 넣어 제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학교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스마트 강의실, 교수·학생 모두 ‘만족’

전북대, 만족도 조사 결과 실내환경 성능 가장 높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1학과 1스마트 강의실 구축 사업이 학생과 교수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76개의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한 전북대는 이 강의실을 이용하는 27개 학과의 교수와 학생 등 1,6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수와 학생 모두 큰 쪽의

만족도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용자들의 실질적 요구사항과 개선점을 파악해 완성도 높은 강의실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공간 규모, 친환경 마감소재, 실내환경 성능, 학습지원 시설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학생들은 특히 강의실의 쾌적한 친환경 마감소재를 비롯해 실내 환경 성능을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리모델링 전·후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교수와 학생 모두 5점 만점에 1점 이상 상승했다.

전북대는 이 같은 교수와 학생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스마트 강의실이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최병숙 한스타일컴퍼스조성본부 부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실제 이용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높은 만족도보다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더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소통·공감·어울림·신뢰 군산교육지원청 교육계획 설명회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군산미장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군산교육계획 설명회를 갖는다. 23일에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누어 오전에는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학교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학부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60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군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한 교육의 방향을 함께 탐색하며 ‘어울림이 있는 학교 꿈을 심는 군산교육공동체’라는 군산교육의 비전에 한걸음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교육주체에 따라 교원들에게는 우석대학교 조범종 교수의 ‘지역, 마을의 역사와 교육활동’의 주제 강연으로 군산민의 특색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학부모에게는 소통전문가 김선애 강사의 ‘함께 행복해지는 소통의 기술’을 통해 자녀와 소통하며 교육의 본질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울림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주광순 교육장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라는 신영복님의 글처럼 군산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군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탐색하고, 교육정책으로 적용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하였다.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한걸음 더하기 위한 군산교육계획 설명회는 24일에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귀국 보고회 열어

특성화고 학생 18명 12주간 호주서 경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2일 오후 본청 8층 회의실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기술·기능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2017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귀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 학생 소감 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사업성과 공유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이번 12주간의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호주에서 직접 보고 배운 것들이 앞으로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될 것이

다”고 격려했다. 이번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호주에서 실시되었으며, 학생 18명이 참여해 4주간의 어학연수와 5주간의 기술연수를 받고, 3주간 기업체에서 현장학습으로 진행했다. 전공분야로는 용접 4명, 자동차 2명, 조리, 제과제빵 12명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글로벌 현장학습 종료 후 호주 현지 취업 의사를 밝힌 10명 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현장학습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및 다양한 해외체험·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관련 특화된 맞춤형 영어교육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와 전문 기술 기능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김민근 기자

2018학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최종합격 98명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22일 오전 10시 2018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98명 명단을 결정하고,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에 발표하였다. 이번 제2차 시험에서는 유치원 일반 29명, 초등 83명(일반 82명, 장애 1명), 특수(유치원) 일반 5명, 특수(초등) 일반 28명 총 143명이 응시하여 유치원 일반 19명, 초등 80명(일반 59명, 장애 1명), 특수(유치원) 일반 3명, 특수(초등) 일반 16명 총 98

명이 최종합격했다. 개인별 성적은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be.go.kr)에서만 조회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이들에 대하여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는 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초등교사 임용후보자는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전북유아교육진흥원과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신규 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신규교사로 임용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가 아니라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수, 박민지)은 호주 동호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을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